



Inventing for life

MSD

THE BIO

편집 : 2024-12-23 16:07 (월) | 제보 | 이슈모아보기

Bring Any
Therapy to Life

Lonza

Biologics | Small Molecules | Cell & Gene

로그인

유료회원가입



R&D

전체기사 ENGLISH NEWS 암 희귀질환 주요질환 헬스케어·AI 기술이전·투자·IPO THE FINANCE 학회줌인 VC insight PREMIUM



ENGLISH NEWS

The interview

윤채옥 진메디신 대표 "콧속에서 뇌로 바로 전달 나노물질 플랫폼, 게임체인저 될 것"

尹英性 기자 | 입력 2024.12.02 12:54 | 수정 2024.12.03 15:16 | 댓글 0



+ - ☰ ☰

- [인터뷰] "항암바이러스에 이어 CDMO, DDS 비즈니스 확장...내후년 기술성 평가"
- "국내외 글로벌 AAV 유전자치료제 개발사들 CDMO 위탁 문의 많아"
- 단·중·장기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꾸준한 수익모델 이어갈 것"
- "항암바이러스 GM103 임상 및 후속 파이프라인 전임상 순항 중"



윤채옥 진메디신 대표이사가 최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퓨전테크센터에 위치한 본사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더 바이오 자료)

[더바이오 이영성 기자] 국내 바이오기업 진메디신(Genemedicine)이 '항암 바이러스' 신약 연구개발(R&D)에 이어 CDMO(위탁개발생산), DDS(약물전달시스템)까지 추가 사업 아이템들을 장착하며 진메디신만의 비즈니스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항암 바이러스(GM-oAd) 개발은 장기적(Long-Term)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두면서, 현재 수도 있습니다.

해 주의 CDMO 사업은 단기적(Short-Term) 스마트데코 사업과 여기에 추가로 DNS 사업

2024년에 새로운 스마트 침대의 가격이 당신을 놀라게 할

스마트 침대 | 검색 광고 | Sponsored

많이 본 뉴스

- 1 프레제니우스, 삼천당제약과 '아일리...'...
- 2 [연말 특집④] FDA, 올해 63개 신약 승...
- 3 비보존제약 '어나프라', 수술 진통제 ...
- 4 [연말 특집③] 올해 주요 글로벌 제약·...
- 5 BMS, 레켐비 원개발사 '바이오아티ック'과 ...
- 6 셀트리온, 퍼스트무버 '앱토즈마' 국내...
- 7 에이비엘바이오·리가켐바이오 공동개...
- 8 연매출 2000억 돌파 난항 겪는 이연제...
- 9 '왕좌의 게임' 높아지는 기대와 깊어지...
- 10 지아이아이노베이션, 면역항암물질 'GI-...



진메디신은 시리즈C 라운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132억원 투자금을 유치했다. 목표 액인 총 100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현재 투자자들과 추가 투자도 활발히 논의 중인데, 투자 검토 중인 해외 기관투자사(VC)뿐만 아니라 항암제 및 퇴행성 뇌질환 같은 중추신경계 분야의 잠재적 제약·바이오 전략적 투자자(SI)들과도 접촉 및 미팅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윤채옥 진메디신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퓨전테크센터에 위치한 본사에서 <더바이오>와 인터뷰를 통해 "단기적 비즈니스부터 장기적 비즈니스까지 사업구조를 만들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면서 "2026년 하반기 기술성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글로벌 AAV 유전자치료제 개발사들로부터 CDMO 문의 많아"

진메디신은 항암 바이러스 신약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여기에 추가로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을 위해 2022년 8월 1300평 규모의 '유전자치료제' 전용 CDMO 시설을 완공했다. 이 분야에서만 25년 이상 연구해온 윤 대표가 관련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하며 전세계 드문 사업을 개시해 회사만의 특별한 가치를 키워온 것이다.

최근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위탁 의뢰가 올 정도로 진메디신의 사업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특히 국내외서 각광을 받는 AAV(아데노부속바이러스, Adeno-Associated Virus)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어 "관련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당 바이오기업들의 개발 성공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우리 시설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의 생물보안법 개정 관련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 공급사 다각화에 의한 CDMO 문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비강 내 전달로 뇌에 전달하는 플랫폼, 새로운 동력"

아울러 항암 바이러스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것이 최근 시리즈C 투자유치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뇌질환 치료용(비침습적) 플랫폼'이다. 저분자화합물(small molecule)이나 항체, 바이러스, siRNA 등을 '뇌'로 전달시킬 수 있도록 만든 DDS(Drug Delivery System) 기술이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GM201이다. 진메디신이 중기적 비즈니스로 꿇는 Intra-nasal(IN, 비강 내 투여) DDS 플랫폼을 통해 개발했다. 보통 뇌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혈류로 전달하면 '뇌혈관장벽(BBB)'에 막혀 뇌 안까지 도달이 어렵다. 하지만 GM201은 비강을 통한 뇌로 전달되는 나노물질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곧바로 뇌 전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폴리머(Polymer) 형태의 나노물질이 약물 전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 나노물질에 치료제를 탑재해 뇌로 잘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쥐와 개 실험에서 전달 효과를 확인했고, 현재 돼지와 원숭이 실험도 준비 중"이라면서 "현재 전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간질 및 파킨슨 등 뇌 질환 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 플랫폼은 전임상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이라며 "최근 바이오 유럽(BIO EUROPE) 등 글로벌 콘퍼런스를 기점으로 다국적 기업들과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메디신의 DDS 비즈니스는 이러한 'IN DDS'뿐 아니라, 국소적으로 서방형으로 약물방출을 하는 'Local DDS'와 전신 정맥투여(IV)를 하는 'Systemic DDS' 플랫폼이 있다.

◇"GM103, 국소투여로 임상1·2상 진행 중...전신투여용 GM102은 임상시료 생산중"

BORYUNG

일양약품



최신뉴스

- 대웅제약, 연말 건강검진 시즌 맞아 대사증...
- 온코닉테라퓨틱스, 리브존제약에 '자큐보...'
- GSK '젬퍼리·제줄라' 병용요법, 난소암 1...
- 박셀바이오, 바이오디자인랩과 CAR-NK ...
- 진매트릭스,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M...'...
- 샤페론, 'BFC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 ...
- 갈렉틴, MASH 치료 후보물질 '벨라페틴' ...
- 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 신약 물질, 국제...
- GC녹십자, 연말 이웃돕기 성금 2억원 기탁
- 세브란스병원, 4년 연속 NCSI 전체 1위.....

2024년에 새로운 스마트 침대의 가격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침대 | 겸색 광고 | Sponsored

지금의 진메디신을 있게 한 파이프라인은 장기적 비즈니스인 '항암 바이러스' 연구개발 분야다. 이 플랫폼은 항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여러 유전자를 삽입해 항암 효과를 배가시키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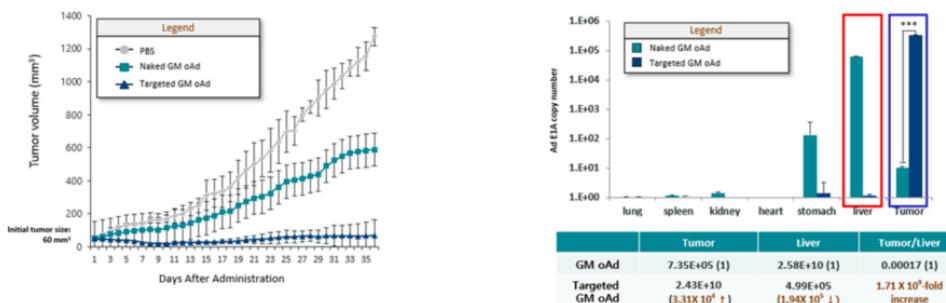
그중 GM103은 항암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국소투여 물질이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1·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아 현재 임상을 진행 중(환자투여 중)이다. 같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도 IND 승인을 받았다.

윤 대표는 "GM103은 국내에서 임상1상을 진행 중으로, 난소암과 유방암, 흑색종, 신장암 등 여러 고형암 대상"이라며 "최적의 항암효과를 고려해 임상2상 적응증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신투여 항암바이러스의 치료 효능



- 전신투여 항암바이러스의 뛰어난 항암 효과
- 종양 특이적 약물 전달



진메디신의 전신투여 플랫폼 기술은 모든 항암바이러스에 적용 가능

출처 : 진메디신 홈페이지

윤 대표는 "후속으로 전신투여용 항암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GM102 파이프라인 임상시료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전신투여는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술로, GM102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물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신투여 기술이 입증되면 GM103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서강대 생물학과, 동대학원 분자생물학과 석사를 마쳤다. 이후 1996년 2월 미국 일리노이공과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같은 해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의대에서 박사후연구 과정을 밟았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 연세대 의대 조교수로 부임했으며, 2011년까지 부교수와 정교수를 역임하다 같은해 한양대 공대 생명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진메디신은 2014년 11월 설립됐다. 윤 대표는 안식년이었던 2017년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로버트 랭거(Robert Langer) 랩(Lab)에서 랭거 교수의 영향을 받고 본격적으로 진메디신 경영에 나섰다. 랭거 교수는 mRNA 백신의 상용화를 이끈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다.

진메디신은 2019년 5월 시리즈A로 165억원을 투자받았으며, 2021년에는 341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시리즈C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2024년에 새로운 스마트 침대의 가격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노스마트 침대 | 검색 광고 | Sponsored



이영성 기자 (lys@thebionews.net)



0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육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Taboola Feed

"발톱 무좀"..적외선 레이저로 집에서 혼자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관리법 1가지,

메디이슈포커스 | Sponsored

더 알아보기

2024년 최고의 보청기: 가격에 놀랄 준비하세요

보청기 | 검색광고 | Sponsored

지금 검색

한국의 남성 모발 이식 - 놀라운 가격을 확인하세요!

Local Plan | Sponsored

더 읽기

"켁켁" 강아지 기관지 협착증,, 어디에서도 극복 못했었지만 집에서 단 3개월 만에 극복 한 후기... (+실제 사진 인증)

뽀삐맘 | Sponsored

고령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 2024/25년 가격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 검색광고 | Sponsored

마우스가 있다면 밤새워 즐기게 되는 게임. 설치 없이 바로 실행. 무료로 플레이.

Panzer.Quest Game | Sponsored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B동 419호 | 대표전화: 02-2054-3583 | 팩스: 02-2054-3584

법인명: 주식회사 더바이오 | 제호: 더바이오(THE BIO) | 등록번호: 서울 아 54987 | 통신판매번호: 2023-서울강남-04559 | 사업자등록번호: 626-87-02951

등록일: 2023-07-31 | 발행일: 2023-09-04 | 발행인: 이영성 | 편집인: 이영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강인효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인효 |

Copyright © 2024 더바이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ykyrose1@gmail.com

2024년에 새로운 스마트 침대의 가격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침대 | 검색 광고 | Sponsored



2024년에 새로운 스마트 침대의 가격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침대 | 검색 광고 | Sponsored

